

월요논단



김 동 운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죽어든 살리든 대통령이 결정하라.” 이는 제주도민여론조사 결과와 상반되게 제2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원희룡 도지사가 3월 17일 도의회에서 내뱉은 발언이다. 제주도민은 이미 제2공항 반대를 결정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 찝찝미가 의심되는 가운데 계속 추진을 주장한 원 지사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칠게 호명됐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제주사회는 찬반의견이 분분했다. 5년 넘게 수많은 토론과 공방과

대통령이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해야

집회와 시위와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당정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제주도, 도의회, 시민사회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도내 9개 언론사의 주관 아래 2곳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각 2000명씩의 도민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고 거기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그것이 모두가 수용기로 한 최종 합의였기에 찬반 측에서는 각기 여론전에 온 힘을 쏟았다. 한 조사에선 반대가 절반을 넘었고(반대 51.1%, 찬성 43.8%), 다른 조사에선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가 높다(반대 47.0%, 찬성 44.1%)는 결과가 2월 18일 공식 발표됐다.

절차가 따라 제2공항 반대 결정된 셈이었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협의 후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로 송부했다. 이제 국토부는 도민의

견을 수용해 제2공항 건설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하면 끝나는 일이었다. 그런데 국토부는 느닷없이 도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원 지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비틀면서까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또다시 제2공항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원 지사는 최근 “만약 대안 없이, 도민끼리 찬반이 갈리니 난 모르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국가가 왜 있다. 그런 대통령과 국가는 인정할 수 없다.”(<한겨레> 3월 28일자)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국토부의 행정절차를 이용해 자신의 찬성 의견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대통령을 공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 과정이 어찌됐든, 이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원 지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서 공격한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원 지사의 공격은 국토부의 어이없고 형편없는 태도가 발마를 준 것이기에 그런

잘못을 저지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마땅하다.

4·3 제73주년 추념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4·3특별법 개정이 확정된 데다가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 참석을 요청했다는 뉴스도 있는 것을 보면 참석이 유력해 보인다.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수렴된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2공항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현 공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대통령으로서 선언해주기 바란다. 강정이 4·3이었듯이 제2공항도 4·3이다. 숨골을 문개고, 새들을 쫓아내고, 농토를 없애면서 눈앞의 문벌이를 위한다며 5조를 퍼붓는 폭거가 통일독립을 외친 도민들을 토벌군경이 짓밟은 역사와 무엇이 다른가. 제2공항 백지화 선언 없이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한다면 그 진정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열린마당

최고의 썸은 백신과 함께하는 #해피엔딩 썸



김 문 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장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 썸, 거리두기를 지킨 #여왕 썸, 집에서 건강 챙기는 #운동 썸, 그리고 다함께 #해피엔딩 썸, 최고의 썸은 백신과 함께하는 해피엔딩이 되길 희망합니다.”

며칠 전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들은 공익광고 내용이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 만 1년 2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최근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예방 접종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요원들은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사명감을 갖고 순차적으로 접

종을 추진하고 있어 뜻있다 하겠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무료접종이지만, 백신 공급시기 및 공급량에 따라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 기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2월 26일부터 만65세 미만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시작으로 1차 대응요원 접종을 완료했다. 향후, 만 65세 이상 요양시설, 만75세 이상 노인, 만 65세~74세 노인 등 순차적으로 계획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소에서는 접종 대상자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백신 유통·보관체계, 사전예약시스템, 위탁의료기관 관리, 이상반응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접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가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도민 모두가 각자 건강상태가 좋을 때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은 물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 코로나 종식의 해피엔딩의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희룡 지사 “천안함 용사 잊지 않겠다”

故차군석 중사 부모 위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6일 ‘제6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천안함 46명 용사인故차군석 중사의 부모를 찾아 위로.

원 지사는 서귀포시 동홍동에 거주하는 차 중사의 부모를 찾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차 중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그의 넋을 잘 기리고 모시겠다”고 약속.

원 지사는 이날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와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 그것을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용기, 희생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강조. 이상민기자

4·3 기념해 동백꽃 배지 배부

○서귀포시가 제주4·3 73주년을 맞아 역사적 아픔과 치유의 기운을 함께 이어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읍면동에서 동백꽃 배지 4373개를 제공할 계획.

시는 오는 30일 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에서 정해진 수량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며 4·3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희생자 추념식 규모가 대폭 축소돼 평화공원 방문 자체가 필요함에 따라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참여하고 추모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 백금탁기자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지원

○제주시소통협력센터가 주민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

소통협력센터는 내달 13일까지 제주생활공론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공모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한 관계자는 “도민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이윤형기자

사설

시티투어버스 취지 제대로 살리고 있나

제주를 찾는 개별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시티투어버스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티투어버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내 관광1번지 제주의 도심권과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가 활성화되지 않아 안타깝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018년 5월부터 2층으로 제작된 제주시티투어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 1만2000원을 내면 제주국제공항을 시작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덕정, 동문시장 등 제주시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기대됐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시티투어버스 이용객이 크게 감소했다. 하루 9회 운행하는 제주시티투어버스(2대) 이용객은 2018년 7만7970명, 2019년 8만2977명이다. 지난해는 2만7513명이 이용. 전년보다 66%나 줄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75명에 그쳤다.

서귀포시가 운행하고 있는 시티투어버스도 마찬가지다. 하루 18회 운행하는 서귀포시티투어버스(3대) 이용객은 2018년 11만7724명, 2019년 13만4126명 등 매년 10만명이 넘었다. 그게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0% 가까이 감소하면서 9만509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시티투어버스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귀포시티투어버스의 경우 일반버스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 또 ‘1%대 수요’인 개별관광객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치르는 것은 아닌지 숙고할 때다. 지난해 전체 관광객 중 시티투어버스 이용객은 1.19% (2019년 1.42%)에 불과했다. 시티투어버스가 관광도시에 필요한 인프라라고 하지만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발담테마 힐링제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제주발담이 힐링과 치유의 섬 제주를 만들 핵심 테마로 급부상하고 있다. 발사이를 구분짓는 돌담이자, 꾸불꾸불 이어진 모습에 흑룡을 닮았다고 ‘흑룡만리’로도 불리는 제주발담은 몇 년새 국가 중요 농업유산에 이어 세계농업유산 지정, 발담 축제 등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가치조명과 활용 방안으로 도내의 큰 주목을 받아온 터다. 발담을 테마로 한 힐링 제주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빈발 등의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으로 충분한 잠재성을 지닌다.

제주시의 발담을 활용한 힐링 제주 플랫폼 구축사업 본격화는 농업유산의 가치 조명과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의 측면에서 희소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지원 프로젝트 응모로 선정된 ‘제주발담과 함께 하는 힐링 제주플랫폼 사업’은 오는 2024까지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농촌 경쟁력을 높일 힐

링 특화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민간조직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지원된다. 우선 조천읍 와흘리 일대에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발담을 테마로 한 힐링제주 플랫폼 구축, 시 일원 발담 힐링 자원 발굴과 민간조직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나선다. 이미 추진위원회와 함께 민간조직으로 사업추진단 구성을 마쳤고, 농림부 기본·실시시설계 승인후 10월까지 사업시행, 12월까지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의 로드맵도 제시돼 본격 사업단계에 들어섰다.

발담 힐링 사업은 확정된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잘 꿰어 제대로된 힐링 상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기존 울레길 돌레길 농촌체험마을 등과 차별화되면서 힐링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도내 곳곳에 산재한 발담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제주의 확실한 ‘보물’로 평가받으려면 이번 사업의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

부 고

한석광(소라횃집 대표) 아버지 청주 한공 응수(향년 95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27일 02시 47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1년 3월 29일(월요일)
▶ 발인일시: 2021년 3월 30일(화요일) 오전 6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 장 지: 양지공원-교래리 선영

- 아 들 한석광 며느리 고영순
딸 한복순 사 위 고봉식
명자 명숙 (敍)문미석
석자 고희
손 한동업 외 손 정현욱
승업 고은중
주희 문보람
강 건
신성훈

※ 연락처 : 한석광 010-3691-9273
고영순 010-9660-9953

부 고

변봉남(서귀포시새마을회장) 어머니 경주김씨 옥인(향년 91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28일 00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1년 3월 30일(화요일)
▶ 발인일시: 2021년 3월 31일(수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제3분향실(2층)
▶ 장 지: 색달공동묘지

- 아 들 변봉남 며느리 고을생
수남 현은자
두남 강경숙
딸 변인순 사 위 좌두현
금숙 양권진

※ 연락처 : 변봉남 010-7179-0631
변수남 010-4697-7974
변인순 010-8613-8256
고을생 010-8663-2792
변두남 010-3542-8209
양권진 010-8663-775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거창신씨 동순(향년 92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 아 들 고충화 며느리 홀미영
길별 김은영
사 위 김병돈
딸 고진숙 김중만
혜숙 임세영
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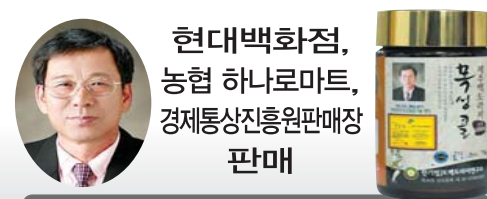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전주이씨 성연(향년 8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 아 들 김선춘 며느리 김미정
수병 강양순
딸 김일춘 사 위 문창준
정순 문영호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시면 이룬 성과 진실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극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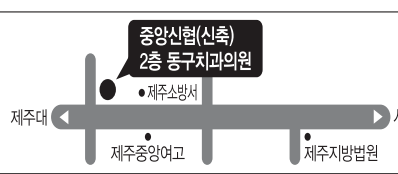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2323-36-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